

# 하림, 고품질 사료생산 본격 가동

### 정읍사료공장 증설 공사 완공... 농가 생산성 향상·소득 증대 기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육계 전용 고품질 사료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농가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힘써나가고 있다. ㈜하림은 지난 19일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치한 정읍사료공장에서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사료공장 증설 공사 완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고품질 사료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정읍사료공장 설비증축 공사는 총사업비 60억원 투입해 대형 펠렛(사료 성형기)기계를 비롯해 사료 저장 시설 확대, 상차라인 증설, 최신 생산설비 등을 갖춰 완공했다.

이번에 완공된 정읍사료공장 설비증축 공사 완료로 인해 월 생산능력이 1만6,000톤에서 54% 향상된 25,000톤으로 늘어났으며, 배합능력 및 액상원료 저장, 투입자동화 등 최신설비를

갖춰 사료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하림은 특히 사료 저장 빈을 기존 280톤에서 540톤을 추가해 총 820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분이 집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송 대기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설비 고장을 현저하게 줄여 배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농가 사료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상차라인을 기존 2개에서 3개 라인을 추가해 5개로 확대, 상차시간 최소화로 사료 운송기사의 피로를 줄이고 신속한 농가 사료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보다 사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료 설비를 증축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정읍사료공장과 김제사료공장 등 2곳에 최신형 펠렛기 4기를 교체해 ㈜하림의 전체 사료생산량을 44% 높일 계획이며, 성수기에도 외부 사료 구매 없이 농가에 원활한 사료공급을 할 수 있도록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육계 전용 고품질 사료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농가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힘써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해나갈 예정이다. ㈜하림 이문용 대표이사는 "정읍사료공장의 생산라인 및 설비 확대 투자를 통해 육계사료의 품질을 높이고 고품질 농장주들의 요청이 많았

던 사료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양질의 사료 공급을 통해 건강한 닭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전북도 - 전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역량 강화 워크숍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완주군 경천애인에서 전북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통합마케팅사업 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조합공동사업법인, 통합마케팅 참여농협, 농협전북지역본부, 농정지원단장 등 120명이 참여했다. 통합마케팅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북 농산물 수취가격 제고로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전라북도, 농협중앙회 본부, 전북농협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통합마케팅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다. 특히,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인 농협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을 위한 시너지 활성화를 위해 10가지 토론 주제로 분임 토의를

실시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푸드플랜에 대하여 특강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만 아니라 전북도 통합마케팅조직으로서 농가-농협-통합마케팅조직-행정이 상호 협력하는 전북형 통합마케팅 상생모델을 완성시켜 심리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의 최첨단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지난 3월 농식품부 산지유통활성화 종합평가에서 김제지평선조공과 남원시조공이 A등급을 받아 지난해의 부진을 만회한 것에 대해 축하했다. 그러면서, "다소 정체가 접어든 전북 연합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사업 목표인 3,400억원을 기필코 달성하여 농가소득 43억원이 순증 되도록 전북농협과 전북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더욱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수호 기자

##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 공시

### 방통위, 5월 2일부터 이용자에게... 주요 17개국과 비교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일부터 이용자에게 스마트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비교 공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 1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교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GDP(국내총생산),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됐다. 비교대상 스마트폰은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과 지난해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스마트폰 중 2개 모델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S8·갤럭시S9·갤럭시노트8, LG전자 G6·V30, 애플 아이폰7·아이폰8·아이폰X 등이 비교공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비교대상 가격은 각 국의 1~2위 이통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다. 방통위가 예시로 공개한 갤럭시S8을 살펴보면, 올해 3월16일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은 최대 33만원이 차이가 났다. 한국은 SK텔레콤에서 98만5000원 출고가로 공시했다. 가장 싼 곳은 스페인 이통사 모비스타(Movistar)로 579유로(한화 75만9399원)이었다. 가장 비싼

곳은 이탈리아 이통사 TIM으로 829.99유로(한화 108만8590원)이었다. 방통위는 매월 둘째 주에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째 주에 공시하고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출시 이후 2개월간 공시한다. 방통위는 공시장소로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 유저'를 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포이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방통위는 이번 비교 공시를 위해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스마트폰 비교 공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가 이루어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 '원클릭 서류제출 서비스'

###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인터넷 통해 한번에 제출 가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운택)은 20일부터 고객이 은행 업무 시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류제출 서비스'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제출 서류를 확인, 동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은 필요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은행은 서류 보관과 별도의 스

캔 없이 데이터를 저장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류는 국제청 홈텍스, 민원 24,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원클릭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은행 거래 고객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종류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한 집배원 '화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16일 11시경 임실군 강진면 신거리 지역(임실군 청평면 지역과 인접)에서 배달중이던 임실우체국(국장 김현순) 소속 한희수(40세) 집배원과 이성범(27세) 집배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한희수 집배원과 이성범 집배원은 우편물 배달중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창고에서 불이 나고 있었으며 동네주민들이 119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이 집주인인 이종순(85세) 할머니께서 외출에서 돌아와 집에 사람이 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 집배원은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할머니를 깨워 등에 업고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다. 그 후에 119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



여 참고 화재를 진압하고 집안까지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으며, 상황이 완화된 것을 확인한 두 집배원은 남은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종순 할머니의 재보로 알려지게 됐다. 한희수, 이성범 집배원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하여 칭찬은 물론, 우체국에서도 선후배들에게 신상이 두터운 직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최수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시각장애인들이 국민연금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외보 '내 곁에 국민연금'을 점자 형태로 최초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점자 사외보는 2018년 봄 호를 시작으로 연 4회 발행되며 기존 사외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노

## 국민연금공단, 점자 사외보 최초 발간

후준비, 건강 팁 등 유익한 생활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자도 있음을 감안하여 점자와 활자를 혼용하여 제작했다. 또한, 발간 호당 500부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이 자주 찾는 시각장애인 협회,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해 여름 호부터 사외보 '내 곁에 국민연금'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책자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